

지역 소식통

**완주 로컬푸드 안전성 강화
생산단계 잔류농약 분석 확대**

완주군이 완주 로컬푸드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단계에서의 잔류농약 분석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생산단계에서의 잔류농약 분석은 그 결과에 따라 안전한 농산물을 직매장 등에 출하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마음 놓고 로컬푸드를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

지난 21일 군은 올 들어 이달초까지 이뤄진 잔류농약 분석 건수 950여건 중, 55%인 500건이 생산단계의 농산물에 대해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는 총 분석건수 1750건 가운데 320건에 그쳤던 2016년에 비해 생산단계에서의 잔류농약 분석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처럼 생산단계에서의 분석이 급증한 것은 업그레이드된 시스템 구축·운영과 함께, 직매장 등에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가들의 호응이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원주=이종복 기자

**김제보건소, 치매교실
두뇌튼튼 체조교실 운영**

김제시보건소(소장 김철희)에서는 최근 늘어나는 치매질환을 예방하고 시민들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치매교실 운영으로 7월 20일 죽산 보건지소에서 주민 25명을 모시고 웃음치로사 최영림의 강의로 “찾아가는 치매교실 두뇌튼튼 체조교실” 교육을 실시했다.

김제시보건소에서는 치매예방의 지름길인 치매예방 3권, 3급, 3행, 건강수칙의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3권, 3급, 3행이란 3권은 운동은 일주일에 3번 이상 걷고, 3급은 생선과 채소를 골고루 섭취, 독서는 매일 읽고 쓰며, 3행은 술은 3잔보다 적게 마시고, 담배는 금연하시고,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고, 3행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정기적 체크와 가족·친구와 소통하며, 매년 치매조기검진을 실시한다는 것을 말한다. /김제=곽노태 기자

한국특수가축협회, 토끼곰탕 후원

김제시장에인종합복지관(관장 김정완)은 지난 20일 (사)한국특수가축협회(회장 배문수)의 후원으로 김제시장에인종합복지관 이용자 250명에게 토끼곰탕을 후원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사단법인 한국특수가축협회 배문수 회장이 증책을 맞이하여 정성스럽게 준비한 토끼곰탕을 대접하였으며, “무더위에 지친 장애인들이 보양식 드시고 더욱 건강한 여름 보내시길 바란다”며 장애인들을 위로하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농협중앙회 혁신도시 이전을”

완주군의회, 결의안 채택... “농생명·금융허브 달성 등 이룰 수 있어”

완주군의회(의장 정성모)가 21일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등 10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제22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날 군의회는 사남읍 의원(고산 6개면)이 발의한 ‘완주군 농어업협회 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운수봉 의원(삼례·이서)이 발의한 ‘농협중앙회 전북혁신도시 이전 촉구 결의안’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특히 군의회는 운수봉 의원(삼례·이서)이 발의한 ‘농협중앙회 전북혁신도시 이전 촉구 결의안’에서 전북 혁신도시와 전북 발전을 이루고, 무너

진 전북의 위상과 자존심을 회복하는 작은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농협중앙회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농협중앙회가 농협 경제지주 16개사에 금융지주 7개사를 계열사로 두고, 해외 네트워크를 구축함에 따라 농협중앙회를 이전시킨으로서 농생명, 금융허브 달성, 농도 전북의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군의회는 채택된 이 결의안을 대통령, 국무총리실장, 농림수산물부장관, 더불어민주당대표, 자유한국당대표, 바른정당대표, 정의당대표, 농협중앙회장, 전라북도지사에게 송

부키로 했다.

이와함께 이날 완주군의회에서 처리된 안건 중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은 제출 원안대로 가결했으며, ‘완주군 산림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은 수정 가결했다.

또한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뤄진 2017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313억8800만원에서 3억4600만원(1.1%)을 삭감하고, 2017회계연도 완주군 총 예산규모(일반회계+특별회계)를 6118억8400만원으로 확정했다.

/원주=이종복 기자



완주군, 조직배양 무병 씨감자 보급 나서

완주군이 농가를 위해 무병 씨감자를 보급했다.

지난 21일 완주군농업기술센터는 조직배양 무병 씨감자 8톤을 선도농가와 감자연구회원 등에 보급했다고 밝혔다.

무병 씨감자 한정 수량에 따라 우선적으로 선도농가, 감자연구회원에 분양한 후 보급중 수준으로 감자를 생산한 뒤 내년도에 감자재배를 희망하는 농가에 공급하게 된다.

감자의 경우 영양 번식하는 작물로 몇 년 반복해서 심으면 바이러스에

감염된다. 감염된 종자를 사용할 경우 50% 내외의 생산량이 감소하는 피해가 발생한다.

따라서 감자 재배 농가들은 매년 씨감자를 구입하고 있다.

이에 완주군이 농가의 부담을 덜어 주도록 씨감자를 보급한 것.

이번 분양에서는 종자 자금을 향상과 작형의 다양화를 위해 품종은 1기작 품종인 수미와 2기작 품종인 추백으로 씨감자를 생산하는 원종이다. /원주=이종복 기자

완주군, 매니페스토 최우수 사례 선정

아파트 르네상스·청년 JUMP 프로젝트·주민참여예산제서 최고 평가

완주군의 아파트 르네상스, 청년 JUMP 프로젝트, 주민참여예산제가 한국매니페스토가 선정한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이인 사람은 도시 재생을 만들겠다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 아파트를 대상으로 아파트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람중심 도시재생 사례로 ‘아파트 공동체’ 총 79개를 육성하고 있다.

앞으로도 아파트 주민들의 수요가 많아 더욱 확대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청년 완주 JUMP 프로젝트는 완주군이 농촌 청년시대의 개막을 선언하며, 청년들이 ‘농고 먹고 사는’ 청년 삶의 질 정책을 내놨다.

귀농귀촌 인구가 가장 많은 완주군의 강점에 부응하고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선 선도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은 주민들이 직접 예산편성에 참여하는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그동안 안길포장, 농로개설 등을 수행했고, 어린이, 청년, 어르신 등 다양한 계층의 예산을 반영하는 정책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에 군은 올해 68억5,000만원 규모의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확정했고, 내년 예산으로 76억5,000만원 규모의 사업을 다양하게 발굴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는 군단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사업이다.

아울러 주민참여예산 일환으로 군은 주민배심원제, 축제 청년 10% 할당제도 추진하고 있다.

박성민 군수는 “모든 행정은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주민의 참여를 통해 진행되는 행정은 주민의 자긍심과 만족을 높이는 중요한 열쇠이고, 앞으로도 공약사업을 통해 다양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이점득심(以聽得心)의 자세로 행정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완주군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2017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SA를 받아 전북 최초 3년 연속 최우수를 달성했다. /원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도내 관광객 유치 위한 현장홍보 펼쳐

김제시(시장 이진식)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지난 21일 정부세충청사에서 출근길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도내 관광지 유치를 위한 현장홍보를 펼쳤다.

전북도와 14개 시·군이 함께한 이날 행사에서 김제시는 이른 아침 출근시간 때부터 우정사업본부와 고용

노동부청사 출입구에서 홍보용 리플릿과 상품 등을 나눠주며 도내 여름 휴가지 등을 홍보하였으며, 카드 한 장으로 64개 유료 관광지 및 1,000여 개의 맛집, 숙박, 공연, 체험 등을 무료 또는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전북투어패스 카드를 소개하기도 하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농기센터, 창업사업장 대표 역량 강화 교육

김제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춘기)는 성공적인 가공사업장 운영을 위한 창업사업장 대표 역량 강화 교육을 오는 28일부터 매주 월요일 8회에 걸쳐 추진하기로 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의 자가 생산 농산물이나 인근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 증진으로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농업인 소규모가공 창업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었다. 농한기를 이용한 일감을 발굴하려는 의도로 여성일감맞기 사업을 90년대부터 추진하여 현재는 농업인 및 귀농인에 게 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추진해오고 있으며 가공사업을 꾸준히 유지해온 사업장 대표들로 구성된 소규모가공사업장 대표회에 대하여 새로운 동기 부여를 위해 이번 역량 강화 교육이

추진된다. 사업장에 필요한 기술이나 마케팅요령, 포장 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김제시 소규모 가공사업장의 변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농식품가공과 마케팅 관련 전문강사를 섭외하여 식품시장 동향 및 마케팅 전략, 제품개발 및 식품기업 지원 사업, 홍보전략, 효율적인 HACCP 적용, 세무회계 등 다양한 분야의 기본적인 소양을 높이고 편리하게 사업장을 운영해 나가도록 도울 예정이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창업한 사업장 대표가 추출을 이루고 김제시 관내 소규모 가공창업 사업지원 신청을 통해 누구라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았다. /김제=곽노태 기자

진안고원
 고향의 정(情)이 살아있는
진안고원 고향할머니장터
 장~ 보러 오세요
 운영일자: 매 장날 운영(4,9일장)
 장 소: 진안고원시장 중앙광장 내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행사문의
 진안군청 전파산업과
 063-430-2951